主

· 五年度資海道地方製品額-五年度資海道地方製品館出資等。 · 五年度資海道地方製品館 · 一五年度資海道地方製品館 · 五年度資海道地方製品館 · 五年度資海道地方製品館

型 では、また。 では、また

金在河 姜濟股 (文川)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ca, Friday, Feb. 5th, 1920. GIVING EUROPE ANOTHER CHANCE
BY J. RAMSAY MacDONALD (N. Y. "NATION")

Cynicism is often chosen by old age to smooth its pillow and make its bed comfortable.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ge has abandoned the faith of youth; it may only mean that the kind of experience which life affords for those who deal much with men makes them patient and tolerant with human weaknese and inclines them to receive what Carlyle regarded as the great and grand verities, certainly not without honor and homage, but with a familiar pat on the back. I confess that the Locarno When it was signed, and still later

Pact puts such thoughts into my head. when it was published, I was in East and Middle Europe, and though moving in places where public men rubbed shoulders and exchanged views, the interest in it was quite secondary. These countries were full cf war problems. Indeed, I do not exaggerate very much when I say that the only reason why there was peace in some of the places visited was that the countries had no resources upon which to fight. When in due course my English newspapers came glowing with Locarno, and when even the Times tuned its harp up to millennial pitch (an outburst which gave great amusement in a diplomatic circle one night), it was difficult for me to adjust myself to the strange contrast between my environment and my newspapers. Even when correspordents informed me that Locarno was being made in England a purely party triumph and was being use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recover some of its lost prestige and influence, I had to come nearer home before I could appreciste its significance. In the theater where war is most likely to break out and from which it is most likely to spread, Locarno was of remote interest. 歐麗巴의事情

州氏に同成會で入會が別選び 仙石貫、

一、雅樂團員中槎東與吳昌元。 反動分子呈認計口除名曾次 一、木浦失業者才會是開催曾次 一、木浦失業者才日日瑜加街이로此 可對한方策會講究計刀屬計外木 浦無產青年戶、木浦勞卿、製油 工組合主催로오는六日下午一時 木浦青年會館에서『失業者大會 言開催計口在木各團體의後接會 6日大規模星本會臺進行計可引 日司(木油)

「新高山」安設의富者某七日文新聞とは小工朝鮮文新聞とは 【安城】 立かり安城警察署留置場の上路博和リア中かの分はところを受けるというでは、1000年のののでは、1000年のでは、100

の付対の中で変数の両者の安在では対外一般人心の中で不安財権の一大繁昌の世界の一大繁昌の世界の一大繁昌の世界の一大繁昌の世界の一大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一大学の

0

地方經済

本 ◆任 員會長최명선 副會長리종실 會長최명선 副會長리종실 經務림차준 庶務장정이 권 당성 財務하홍자 幹事림촌 당 유병당 박용자 감사라 강질성(新高山)

라춘컨

可是世升人格舎なる

野型力만

▲金芝鉉氏(同上宣傳部委員)同 ▲金菱稲氏(培花女高教師)四日 午前二時市內新橋洞四十番地 의一自宅の分遭内製喪六日午 到一自宅の分遭内製喪六日午

▲金汞柏氏(朝鮮日報沙里院支局長)第六回資海道即續員會司特派記者至汉中가昨日臨局受別。 本李銷瀚氏(大柴河助社底獲部 委員)社紛暑帶計立約二週豫定の至四日全北群山方面の出

(海道)

○義州農村同園購演 一月三十 一日義州公留常内の分朝鮮選州支局朝鮮日報義州文部의主催외義州支局東亜日報義州支部의後接の豆二階 明定副朝鮮日報義州分局東亜日報義 明度三朝鮮農民社主幹李晟煉匠 り維持島吐むの一般網家の吐き の一日義州と自由、 日本 一般網家の吐き 日本 一般網家の吐き 日本 一般網家の吐き

宣氏已催散器年民十

學製及手工展覽出開展那山北面公立普校司分と表三十一日에同校の學獎會及手工品優寬會營開催計外叶と同時工品優寬會營開催計外叶と同時工品優寬會營開催計外叶と同時工品優別會公司(尚州)

連信波技用 出席大田郵便局の分与來二月七 出席大田郵便局の分与來二月七 解한叶と비當日合思南北重要局 解한叶と비當日合思南北重要局 所可分多數參加한叶計可官公署 有志諸氏景照得前的中計可官公署

大学 (1) 大

慶尚北道慶州郡慶州面路四里大東醫院院長権宇煥氏と今般時间 書二割引計기로計立又本報支局 引取ら無料足可기로計立又本報支局 本支局員一同ら氏의好意等級則 本支局員一同ら氏의好意等感謝 本支局員一同ら氏의好意等感謝 本支局員一同ら氏의好意等感謝 本支局員一同ら氏의好意等感謝

退潮養勇團 十四日松企里李準龍氏家の分第 九回定期總四臺開計立國員整理 外在中의主義網領。臺政定計立諸 般事項 討議計與中共司宣曾 假規約斗改選早委員企如左計立 計會進化의法則下列分新 計會進化의法則下列分新 計會

者優

各任伯(退潮) 來吳松

変

和い、製造競技 清道郡 一等十圓一人 二等二圓五人 四等一圓十人 三等二圓五人 四等一圓十人 三等二圓五人 四等一圓十人 三等二圓五人 四等一圓十人 三等二圓五人 二等二圓五人 二等二圓五人 三等二圓五人 三等二圓五人 三等二圓五人 二等二圓五人 四等一圓十人

资施道立學校入學受験料簽

面决에四

日一議員

血民大會도禁止

一部で香外の의旁屋呈

비명이나사이 비명이 이러나 사망자학명의 바탕이 이러나 사망자학명의 바탕이 이러나 사망자학명의 바탕이 이러나 사망자학명의

小作料徵收內規

在滿同胞의困境

日本에서도

强盗骚動頻頻

가처로대활동

女と短刀の重傷立みをはいれるとなっているとなっている。 러느러오것인지

로 이수원군 양강면물소리(水原郡 주의사람의 모함이 이 부근산승이로 나무를 하고기 의상남충소멸(漢漢八)로 관병 이 아부근산승이로 나무를 하고기 의상남충소멸(漢漢八)로 관병 기자 (村里)로 돌리가 (서里)로 돌리가 (서里)로 돌려가 (서里)로 돌리가 (서里)로 돌려가 (서里)로 돌려가 (수원리 이 라크 (소면)로 (보고)에 이 어떤 다구를 려해한다 등이나 어린 이 아무르 대로 (보고)가 (이 라크 구를 함께 가 보고 이 아무를 대한 이 라크 그를 통해 이 아무를 건이 나무다 가 등양부족이로 위의 보다 시 고요이를 당해 가 보급 리 하기의 보다 (청소의 그 라이 보다 가 보급 리 하기의 보다 (청소의 보다 가 의원 보다 가 대로 이 라고 시하아 (라리 보고) 하아 추종을 당이 다 가 기보집 이 아무를 건 이어 이 아무를 건 이 아무를 건 이 아무를 건 이어 이 아무를 건 이어 이어 이 아무를 건 이어 이 아무를 건 이어 이어 이 아무를 건 이어 이어 이 아무를 건 이어 이

市北村洞)智公子世口 単いでる Oil IT

함의 설명을 大기명스며 현취도를 취주아니힐수가입성다 우리는먼저 인을 많이 명리 분열마나 모난을 당하십大가 하고들었다 그들의모든시성이

고 등면룡장리(龍岡里) 김봉진 소 縣族)의 혐실을 빌어가지고 그날그날을 벌어서 먹고지내는 이 로콜과는곳에가서 돌인도모 일지 가급 치율고도바람찬날에 비지 가를 당은 이마로부터 홈러나리

부러모커장가를 보낸것이 한城의 사람이 모하고한 영승하기도하여 한城 등 이외 역(田龍石)(量)이외 역을 유력장을 자이르날 부러 사망의단점을 가이오면서비밀리에부모의단점을 가고 달기감을 따라두사이에날이 당되지를 보라두사이에는 이다 워크워봉이는 커용으로당 만이성(男性)의 관계를 낫지못 망하야 한장면지들에서 행당방에

在成未久の

가하는 B& 사의 모친리시에 보신에 보신에게돈 다 나는 커너의 몸으로 자리한 다 나는 커너의 몸으로 자리한

중 이라더라 잇는듯

滿洲踏查(32)

용치(應急使用處)를 알고 그릇 당하 의외에삼원이라는 고가를 당하합으로 부득이 급권이부족 하야 사서먹이지못하였는데 그 사람이 마출내 구워되지못하고

뜅대신닭쓴심

賃金關係已血戰

선적로공사를하는중에

從業中無理逐出

정상에 독특한 열정한자 역으로 기계의의상을 건부자백 하였다. 지기의상을 기계하는 바 행동이 전병자 기계를 다른 다른 한 일을 다 하는 다 한 일을 다 江西州布木窃盗

反愛 台一兄에게

逐出當하ユ自殺

의悲痛

하 맛된 리 당 거 나다지초는 에 이 오 더 안 목 수 부 가 기	
催主社報日鮮朝	
人鮮朝內市城京 板看店商 紙用票投賞懸	
氏住投票	芝 第看
名所者	商一板店を引
M 178 75	***
H 54 74	
H 20 A	

コ와アゴ号

무구구가 만히 서잇는데치 등이로임용서의 모친이 연하면 는 된지의된다을 그대로 소개하면 아래와가를바 장래에 어어에게 하다면 가게 하는데 가게 되었다면 가게 하는데 가게 하는데 가게 하는데 가게 되었다면 가게 되었다면

一 北門 引己 才完然可以以外の一三種名字 とろう 医腹腔